

스마트폰 차세대 혁신은?… 접히거나 더하거나

<폴더블폰>

<카메라렌즈 5개>

삼성·LG, 차기 출시 폰에 '5개의 눈' 탑재
세계 최초 4개 카메라 장착한 화웨이 견제
삼성 폴더블폰 공개 임박… 업계 선도 촉각



폴더블 스마트폰 컨셉트 디자인. /삼성전자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화된 카메라 성능이나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억9850만대의 스마트 폰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3억대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프리미엄폰 공세와 스마트폰 시장 포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업체들 간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스마트폰 업계는 향상된 카메라 성능을 무기로

에 각각 3개, 2개의 카메라를 장착한다. 삼성전자는 그간 갤럭시 시리즈 전후면에 각각 1개의 카메라만 탑재해왔는데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노트8 후면에 2개의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카메라 수를 늘렸다.

LG전자가 10월 출시 예정인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40 씽큐'(가칭)에도 5개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의 카메라가 위치하며 후면의 카메라에는 1200만 화소(F/1.5), 1600만 화소(F/1.9), 1200만 화소(F/2.4)의 렌즈가 탑재된다.

이처럼 카메라 수를 늘리는 데는 중국의 스마트 폰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카메라 4개를 장착한 'P20 프로'를 출시했다. P20은 유럽에서 전작인 P10 플러스 대비 판매량이 3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오는 11월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삼성전자는 최초라는 타이

틀보다 제품 완성도에 집중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최근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폴더블폰의 개발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간 폴더블폰을 두고 '최초 출시'와 '제품 완성도'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최근 화웨이가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에 자극을 받은 것 같다"며 "삼성전자는 이미 폴더블 폰에 대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조만간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개발자 커뮤니티나 마니아 중심의 동호회 온라인 모임 등에서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 대한 컨셉트 디자인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폴더블폰의 주요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주 커뮤니티 등에서도 부품 공급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박진수, 글로벌 인재 찾아 6년째 미국行

〈LG화학 부회장〉

美 주요 30여 대학 학부생 초청
직접 회사 가치 소개하고 채용



LG화학 CEO 박진수 부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CTO 유진영 사장(왼쪽 첫 번째)이 미국 LA에서 열린 인재채용 행사에 참석한 인재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LG화학

LG화학 박진수 부회장이 미래 성장을 주도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임 후 6년 연속 미국을 찾았다.

LG화학은 지난 주말 미국 로스엔젤레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CEO 박진수 부회장을 비롯해 CTO(최고기술경영자) 유진녕 사장, CHO(최고인사책임자) 노인호 전무 등 최고경영진들이 참석해 열린 채용행사인 'BC(Business & Campus)투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CEO 취임 이후 6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현지 채용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스텐퍼드 대학, 듀크 대학 등 미국 주요 30여 개 대학 학부생 및 석·박사 40여 명이 초청됐으며, 박 부회장은 직접 이들에게 회사를 알리고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회장은 "LG화학이 올해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투10 화학회사에 진입했다"며 "이는 국내 최고를 넘

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임직원들의 간절한 '꿈'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건설된 당시 락히화학공업사의 부산 플라스틱 공장에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을 위한, 종업원의 회사'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소개하며 "LG화학의 힘의 원천은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우리나라 시대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었던 최고의 말 감정가인 '백락(伯樂)'처럼 회사를 이끌어 갈 천리마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CEO의 가장 큰 사명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며 "천리마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처럼 LG화학은 꿈꾸는 것을 마음껏 실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로 연평균 15%의 고도 성장을 계획하고 있어 선제적인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작고 가벼워진 AI 스피커 '프렌즈+미니'

LG유플러스 '프렌즈+' 후속 3종



모델이 LG유플러스의 '프렌즈+ 미니'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U+인터넷가입 고객 중 U+tv에 신규 가입하거나 U+홈IoT 패키지 상품 5종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프렌즈+ 미니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데이터 88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도 1년 약정으로 프렌즈+ 미니를 무료 증정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남북 우편교류 지지 촉구

우본 만국우편연합 총회서

4차 산업혁명 혁신시대의 우체국 혁신을 논의하는 UPU 총회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192개 회원국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8일까지(한국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192개 회원국 대표와 옵저버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성주 본부장은 총회 폐막식에서 남북 우편물 교류협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본부장은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 21차 만국우편연합 서울총회에서 채택된 '남북 우편교환 촉구와 한반도의 자유로운 우편교환 요청' 결의문을 상기시키고, 남북 우편물 교환이 가능하도록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나인 기자

OTT 최초 캐릭터 굿즈 '옥수수 패밀리' 출시

SK브로드밴드 '옥수수'

모찌 쿠션·안마봉·에어팟용 키링 텀블벅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예판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oksusu)'의 캐릭터 브랜드인 '옥수수 패밀리(oksusu family)'의 첫 굿즈(인기 캐릭터 등을 주제로 만든 상품)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옥수수 패밀리'는 서비스명인 '옥수수'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OTT 업계 최초의 캐릭터 브랜드다. 총 5종의 캐릭터(옥수수, 꿀잼, 치치, 칠리, 콘파카)가 불이 꺼진 옥수수 극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옥수수 패밀리'는 지난 5월 출시됐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옥수수 애플리케이션(앱) 내 실시간 채팅 방에서는 옥수수 패밀리 이모티콘 출시 후 월 평균 200만 건의 채팅량이 발생, 전반기에 비해 약 2.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 패밀리'의 인기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캐릭터 굿즈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이 지난 8일 포항 발산리의 항구 및 해안 방파제에서 폐플라스틱 등 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 폐플라스틱 수거 등 수중정화 앞장

'클린오션 봉사단' 쓰레기 5톤 수거

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은 지난달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핵심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폐플라스틱 수거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서울과 포항 클린오션봉사단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폐플라스틱 쓰레기 1톤과 폐타이어·불가사리 등 총 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